



serial

글. 이관석_ Lee, Kwan-seok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르코르뷔지에

Le Corbusier

건축 전공자라면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에 대해 조금씩은 안다. 현대건축에 끼친 영향력이 큰 만큼 그의 건축 철학과 작품은 어느 건축사 못지않게 자세히 소개됐다. 그림에도 아직도 많은 연구자들이 르코르뷔지에를 주목하는 것은 사회·예술·문화 전반을 탁월한 통찰력으로 거침없이 더듬은 그의 예민한 촉수가 여전히 수많은 향방을 가리키고 있으며, 더듬어 따라가 각각의 종착점에 도착했다고 안도할라치면 또 다시 예상치 못한 길목에 들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는 르코르뷔지에 건축의 생명력 앞에서 그의 사망 후 5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해진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와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에 이은 이번 르코르뷔지에 연재에서는 그동안 그에 대해 알려진 것들에서 약간 다른 면이나 아직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면을 다루고자 한다. 필자가 지난 몇 년 간 학술논문이나 저서 등에서 살폈던 내용들인데, 이번 기회에 건축 일선에서 실무를 수행하며 현실적으로 이런 연구를 접하기 쉽지 않은 건축사분들에게 르코르뷔지에의 또 다른 일면을 소개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필요한 교훈과 깨달음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르코르뷔지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계에 대한 그의 진정한 자세가 어떠한지, 다소 엉뚱하지만 직접 건축교육에 참여해본 적이 없는 그의 건축교육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 불항 때문에 일거리라곤 없다가 했던 10여 년의 무시무시한 공백기를 그가 어떻게 견디며 내일을 기약했는지, 스치는 우연한 만남을 필연으로 바꾼 그의 인연이 그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그가 말하는 건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한양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벨빌건축대학에서 프랑스건축사 학위를, 파리대학교에서 예술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남대학교를 거쳐 현재는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빛을 따라 건축적 산책을 떠나다>(2004)와 <건축, 르코르뷔지에의 정의>(2011) 등의 저서를 비롯해 역서 <건축을 향하여>(2002), <프레시지움>(2004), <오늘날의 장식예술>(2007) 등 십여 권의 책을 발간했다.

연재 목차

1. 르코르뷔지에와 기계
2. 르코르뷔지에와 건축교육(上)
3. 르코르뷔지에와 건축교육(下)
4. 르코르뷔지에의 '지속연구'
5. 르코르뷔지에의 인연
6.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정의(上)
7.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정의(下)

6.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정의(上)

_ 시대정신의 반영이자 물질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건축

‘건축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건축 전공자라면 건축을 처음 배우는 순간부터 전문인이 된 이후에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화두일 것이다. 이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의 총합으로 정리한, 일생의 업으로 삼은 건축에 대한 개인적 정의를 분별하고 공고화하여 자신이 취한 건축적 자세의 사회·역사·기술적 위상을 정리하면서 건축인으로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식 있는 자의 본능적 행태의 발로라 하겠다. 최근에 건축이 무엇인지 묻지 말아야 한다며 얘기를 풀어놓은 책이 나왔지만, 이 역시 건축이 뭔지를 고민하는 또 다른 모습이다.

이 글은 르코르뷔지에 연재의 마지막 주제로서 이 질문과 관련된 연명 가운데 특히 그가 1920년대에 발표했던 저서들을 통해 표명했던 건축의 의미에 주목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20년대는 근대건축의 성립 기간으로 간주되는 시기로서 이전 시대의 건축과 구별되는 근대건축의 특성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발현되었고 다수의 선구적 예술잡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행되어 건축의 현대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던 때였다. 르코르뷔지에에는 화가 오장팡(A. Ozenfant) 및 시인 데르메(P. Dermée)와 함께 발행하여 1920년대 초반에 국제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잡지 『레스프리 누보』(L'Esprit Nouveau)에 실린 자신의 논평들을 묶어 별도의 책으로 연속 간행함으로써 20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건축의 길을 추구했던 당시 아방가르드의 치열했던 최전선에 나섰다. 매스미디어에 대한 본능적 이해력과 탁월한 시사적 감각을 지녔던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개념과 실행은 이 『레스프리 누보』와 함께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의 저서들 곳곳에서 상황에 따라 여러 뉘앙스로 개진되었던 새로운 건축의 정의에 관한 언급들에 내재된 상호 연관성을 정리하여 그 의미를 정리하는 데 일차적인 의의가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추후 당시 전체 건축계에서 표명되었던 건축의 정의에 관한 역사적 언급들과의 비교 분석이나 그의 글과 건축 작품과의 관계를 심도 있게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레스프리 누보』에서 비롯된 저서들 중 특히 이번 글의 주요 출처가 되는 『건축을 향하여』와 『오늘날의 장식예술』 및 『프레시지

옹』에는 “건축은 ...다”, “건축은 ...에 있다”, “건축은 본질은 ...에 달려 있다”, “...는(은) 건축의 기본이다”, “건축적 구성은 ...이다” 같은 건축의 정의를 규정하는 문장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책들에 나오는, 건축의 정의와 연관된 문장들을 모두 발췌하여 문장의 전후 문맥과 아울러 각각에 담긴 키워드를 함께 고려하면서 각 문장에 담긴 개별적 의미와 상호간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이 글의 뼈대가 될 분류의 틀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발췌된 전 문장을 개별적·전체적으로 거듭 정리한 결과에 따라 이전 건축과 다른 새로운 건축의 물질적 측면에서 본 범주와 이렇게 달라져야 할 새로운 건축이 지닐 정신적 측면에서 본 범주 및 그가 건축이 이르러야 할 궁극적 목표로 보는 감동으로서의 건축으로 대별했는데, 결과는 <표1>과 같다. 건축의 물질적·정신적 비중은 시대에 따라 저울질되어온 바, 르코르뷔지에 역시 물질을 통해 구축되지만 정신에 의해 통제되는 균형 잡힌 건축을 추구하면서도 각각의 본질에 있어서는 이전 건축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건축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¹⁾

이 주제에 대해 두 번에 걸쳐 연재되는데, 이번 호는 <표1>로 정리된 논의거리 중 1920년대에 문필가이자 건축사로서의 르코르뷔지에를 이해하기 위한 요약과 건축에 대한 그의 모든 정의의 바탕에 깔린 시대정신의 자각과 기계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가 물질적 측면에서 본 새로운 건축의 정의들에 담긴 의미까지 살펴본다. 정신적 측면에서 본 새로운 건축과 그가 건축이 이르러야 할 궁극적 목표로 보는 감동으로서의 건축에 대한 정의는 다음 호에서 다루길 것이다.

<표1> 1920년대 르코르뷔지에의 새로운 건축 정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건축			
물질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건축		정신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건축	
기능과 조직으로서의 건축	동선과 볼륨으로서의 건축	질서와 조화로서의 건축	자연광을 기본으로 한 건축
감동으로서의 건축			

1) 건축에서 형식과 내용의 적정화(propriety) 같은 고래로부터의 기본 원칙은 건축의 물질성과 정신성에 균형감각을 요구하지만 둘 사이에서 요동치는 비중의 변화는 건축역사에 그대로 드러난다. 르코르뷔지에도 “건축 정신은 오직 물질적 상태와 심리적 상태의 결과로 생겨난다.”며 건축의 물질적이지 정신적 속성을 인정하였다. 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105쪽.

Le Corbusier

시대정신이 반영된 건축

1) 1920년대 문필가로서의 르코르뷔지에와 시대정신의 자각

1920년대 르코르뷔지에의 저서에 나오는 건축 정의의 바탕에는 그가 아직 개척되지 않은 영적인 땅인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올바른 시대정신에 근거한 건축을 향한 열망이 있었음을 먼저 적시할 필요가 있다. 이 저서들에서 '시대'라는 용어와 함께 하는 건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횟수를 넘어서 사실상 책 내용 전체가 시대정신을 설명하고 있으며, 앞으로 살펴볼 건축의 정의 모두가 이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건축은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건축은 시대에 기인하는 감정을 물리적으로 결정하는 체계다", "건축은 한 시대의 사고방식을 표현하는데...", "건축은 시대정신의 결과입니다" 같은 거듭된 언급이 오늘날에는 보편화된 관점이 되었지만, 여기서의 관심은 그가 어떻게 남다른 시대의식을 가질 수 있었는가와 그가 당시를 어떤 시대로 인식했느냐에 있다. 먼저 그의 작업에서 집필활동이 지녔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의미로 문필가로서 르코르뷔지에의 모습과 건축 작업과의 관계를 요약해보자.

1920년대에 이미 르코르뷔지에의 중요한 건축 이론과 건축물들을 다수 생산했지만, 단기간에 구축된 당시 그의 사회문화적 위상은 문필가로서 다져진 것으로, 건축행위는 왕성한 필력의 위력에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다. 둘 다 오장팡이라는 출중한 친구의 선도로 시작되었지만, 1918년에 발표한 『큐비즘 이후(Après le Cubisme)』를 이은 정기 간행물 『레스프리 누보』는 최대 3,500부까지 발행되어 유럽 각국은 물론 멀리 미국과 일본까지 화가·조각가·건축사·의사·변호사·교육자·기술자·기업가·은행가 등 다양한 직업을 망라한 정기구독자를 확보하며²⁾ 혁신적 시각을 제공한 영향력 있는 잡지였다. 급변하는 사회와 경제의 새로운 원리들을 다방면으로 이해할 필요를 느낀 당시 사회지도자들의 공통관심사를 『레스프리 누보』가 충족시켜준 것이다.

반면에 1920년대에 30대와 40대 중반 사이인 건축사로서 르코르뷔지에의 경력은, 상대적이지만 의외로 일천했다. 이 10년 동안 그는 준공을 기준으로 22개의 프로젝트를 신축 또는 증축하였는

데, 프뤼게 근대집합주거단지(Quartier Moderne Frugés, Pessac, 1924-26)를 제외한 대부분은 주택 같은 소규모 작업이었다. 20세기 건축 저술 중 가장 중요한 결과물의 하나로 평가받는 『건축을 향하여』를 발간했던 1923년 당시 그는 1908년에 발표된 로스(A. Loos)의 유명한 논설 『장식과 죄악』(Ornement et Crime)을 1921년에 뒤늦게 『레스프리 누보』에 불어로 번역 게재하면서 받은 교훈³⁾을 통해 마침내 빌라 슈(Villa Schwob, 1916-17)의 왕관(cornice)마저 걷어낸 보크레송 주택(Villa Vaucresson, 1922-23)을 건설했고, 오장팡 주택(Villa Ozenfant, 1922-24)을 시공 중이었다. 이 1923년을 전후하여 그가 수주한 상당수의 주택이 대부분 예술 행위자나 수집가 등 예술 애호가와 후원자들에 의해 발주된 것에서 건축사로서의 그의 활동이 문필가로서의 활동 덕을 적잖게 보았음을 앞서 연재한 「르코르뷔지에의 인연」에서 이미 보았다.

르코르뷔지에의 1920년대의 10년간 36건의 지어지지 않은 계획안을 남겼는데, 1925년 이전까지는 한해 평균 2.8건의 작업(5년간 14건)에 그치다가 『레스프리 누보』가 중단되고 이어서 비롯된 『도시계획』, 『오늘날의 장식예술』, 『근대화』가 집중적으로 발행된 1925년 다음해인 1926년에만 10건의 설계를 새로 시작한 사실도 그의 글쓰기 작업의 여세가 건축 작품 활동과 무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⁴⁾ 이에 더하여 1922년의 300만 거주자를 위한 현대도시 계획안 전시와 1925년 레스프리 누보 전시관을 둘러싼 소동, 국제연맹 청사 신축을 위한 경쟁에서 기디온(S. Giedion)과 함께 했던 항의 등은 그를 국제적 논쟁의 중심인물이 되게 했다. 그는 오만에 가깝게 여겨질 만큼 자기 확신에 기초한 도전적 기질을 지닌 인물이지만, 또한 이러한 그의 성격이 글에도 나타나 흔히 정문(正文)의 규칙을 벗어나고 문법 및 문맥에서의 파격 속에 중의적 용어들이 빈번히 구사되었지만, 이 도전과 좌절, 쟁취의 거칠고 모난 시기에 그의 사고체계를 정리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데 글쓰기 작업이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했음은 분명하다.

르코르뷔지에의 1920년대 저서들은 또한 그가 동시대의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당시를 장악했던 아카데미즘과 투쟁했음을 증언한다. 『건축을 향하여』 3차 증보판(1928년)의 서문에서 장막 뒤로 숨어 과거로 회귀해 버린 아카데미즘의 농간에 동점 당선된 자신의 국제연맹 계획안이 배제된 상황을 「고열상태」라는 제목으로 맹렬

2) Colomina B., Architecture et Publicité in Jacques Lucan(Direction de l'ouvrage), Le Corbusier, une encyclopédie, Centre Georges Pompidou, 1987, 142쪽

3) Maurice Besset, Le Corbusier, Skira, 1987, 30쪽. 이 글에서 르코르뷔지에의 명석하고 독창적인 로스가 장식의 무용함을 개선하며 산업의 위대함과 그것이 가져온 기여를 미학에 적용하려는, 1921년 당시에도 여전히 혁명적이거나 기묘하게까지 보이는 확실한 진리를 선언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4) 작업의뢰 시점을 감안한 때문에 계획안을 시작한 해를 중심으로 보았다. 그동안 계획 및 시공연도가 책마다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가장 최신에 면밀하게 조사된 결과물인 J.-L. Cohen(int.), Le Corbusier, le Grand, Phaidon, 2008, pp.758-759를 참조했다.

히 성토한 것에서, 건축사를 황산이나 독을 넣은 우유를 파는 장사꾼으로 비유한 데에서, 더 이상 자신의 기원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축이 관습 때문에 질식되고 거짓인 양식들(styles)에 매몰되어 있음을,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장식예술이 만연되었음을, 과거 표절에 여념이 없음을, 건축이라는 위대한 예술이 장식이라는 빈곤한 수단으로 연명함을, 아카데미즘이 파리를 비롯한 세계의 대도시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위증자임을 고발할 때와 같이 저서의 곳곳에서 르코르뷔지에의 자신이 당시를 철저히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 저서들은 그가 한 시대의 문화적 소산에 공통되는 인간의 태도나 양식 또는 이념을 뜻하는 시대정신(Zeitgeist)과 관련된 남다른 시각을 갖출 수 있었던 배경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1907년에 시작하여 1917년에야 끝나는 긴 답사 여행을 통한 개안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여행은 스위스 산골도시 출신의 꿈 많은 젊은 이로 하여금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 시각적 문화 습득과 산업혁명이 완수해 가고 있는 형태의 세계에 대한 충격을 경험하게 했다. 여기에 앞서 연재한 「르코르뷔지에의 인연」에서 거론됐던, 여러 선각자들과의 만남을 통한 깨우침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 기계와 건축

“근대 현상인 기계는 이 세상에서 정신의 개혁을 수행한다.”⁵⁾는 언급과 같이 새로운 시대정신에 합당한 새로운 건축을 향한 르코르뷔지에의 열망에는 당시 산업계를 주도하기 시작한 기계가 주는 교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첫 연재에서 별도로 다룬 적이 있지만 조금은 다른 내용을 덧붙여 다시 한번 요약해본다.

『건축을 향하여』는 첫 장인 「엔지니어의 미학과 건축」에서부터 「보지 못하는 눈」, 「대량생산주택」까지 줄곧 기계시대의 도래를 언급하고 있다. 토목공학의 성취물인 곡물 저장탑이나 교량 같은 구조물이 보여주는 엔지니어의 미학과 독일공작연맹의 연감에서 새로운 산업시대의 주요한 기술적 구성원으로 이미 인정받은 대형

여객선, 비행기, 자동차 같은 기계화된 수송수단에서 새로운 시대의 양식이 이미 존재함을 확신한 것이다. 『프레시지옹』에서 르코르뷔지에가 신대륙 남미에서 행한 열 번의 강의를 「모든 아카데미즘으로부터의 해방」, 「기술은 시적 감흥의 기반이며 건축의 새 시대를 연다」는 주제로 시작한 것도 그가 새로운 건축을 위해서는 올바른 시대정신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오늘날의 장식예술』의 「기계의 교훈」과 「건축의 시간」 같은 장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르코르뷔지에가 새로운 건축을 위해 필요한 정신은 기계 시대에 대한 인식과 아울러 기계의 속성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⁶⁾ 산업혁명, 사회혁명, 정신혁명이 모든 것이 조장된 지난 100년 동안 급속도로 발전하여 당시 사회를 빠르게 개조하는, 모든 것을 전복시킨 기계를 향한 그의 느낌은, 일상생활을 통해 정당화되는 바와 같이, 존경과 감사, 존중이었다. 거기에 는 도덕적 감정마저 깃들어 있었다.

르코르뷔지에가 기계에 대한 경애심을 갖게 된 것은 핵심을 파악하는 그의 혜안 덕분이라 하겠다. 기계에서 정밀성, 경제성, 정확성, 엄격성, 순수성, 단순성 같은 건축이 본받아야 할 현대적 덕목을 발견한 것이다.⁷⁾ 원인과 결과의 순수한 관계라는 기계가 주는 교훈으로 인해 내포된 순수의 미학, 정확성의 미학, 표현적 관계의 미학이 우리 정신의 엄밀한 기계장치를 가동시킬 수 있음을 간파하고, “돌아가는 모든 기계는 현재의 진리”라고까지 말하였다.⁸⁾ 기계를 향한 이와 같은 호의로 그는 기계시대의 생산품을 새로운 정신이 충만한 작품으로, 순수를 지향하며 우리의 감탄을 자아내는 자연의 객체들과 동일한 진화법칙을 따르는 유기물로, 고귀한 시정을 지닌 현실적인 사물로 받아들였으며, 산업가들을 현대미학의 가장 활동적인 창조자로 인정하였다. 대형 여객선에서 조용하면서도 생명력이 넘치고 강한, 대담성과 단련, 조화와 아름다움의 중요한 발현과 대면하고 있음을, 비행기에서 부양하고 추진하는 수단을 공기에서 찾은, 제대로 제기된 문제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 자동차에서 분석과 실험을 통해 제어된 논리를 보증으로 한

5) Le Corbusier, 『오늘날의 장식예술』, 이관석 역, 동녘, 2007, 123쪽.

6) “인간사에서 새로운 요소인 기계는 새로운 정신을 일으켜 왔다. 한 시대는 자신의 건축을 창조한다. 이 건축은 사고 체계의 선명한 이미지다.”(『건축을 향하여』, 105쪽). “기계시대의 위대한 삶은 사회를 밑바닥까지 감동시켰고...”(『오늘날의 장식예술』, 60쪽). “근대 현상인 기계는 이 세상에서 정신의 개혁을 수행한다.”(『오늘날의 장식예술』, 123쪽), “기계화가 모든 것을 뒤바꿨습니다.”(『프레시지옹』, 40쪽)

7) “기계에 의해 두드러진 정밀성의 시대를 반영하는...”(『오늘날의 장식예술』, 54쪽), “기계류는 엄격한 선택으로 이끄는 필수 인자인 경제성을 내포하고 있다.”(『건축을 향하여』, 138쪽), “이제부터는 기계가 불변의 정확성과 가차 없는 엄격함을 선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오늘날의 장식예술』, 82쪽), “우리를 좋은 감각으로 데려가는 기계장치들과 진리의 첫 접촉인 단순함의 심취와 ...”(『오늘날의 장식예술』, 118쪽)

8) Le Corbusier, 『오늘날의 장식예술』, 이관석 역, 동녘, 2007, 123-130쪽.

9) 르코르뷔지에의 당시의 시대상황을 잘 보여주는, 1925년 파리에서 개최된 장식예술박람회 프로그램은 “잘못된 조화, 날조, 속임수”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Le Corbusier

확실한 기반 위에 설정된 표준을 통해 완벽성에 맞서야 한다는 자각을 얻었던 르코르뷔지에의 깨어있는 의식이 시대정신에 합당한 건축을 갈구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1920년대 건축의 주류는 격변하는 세상과 동떨어진 채 과거로 회귀해 안존했다.⁹⁾ 그러나 유독 “건축만이 기계화의 방식에서 여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는 르코르뷔지에의 탄식은¹⁰⁾ 인습적인 교육과 기성세대의 그릇된 가치관에 의해 왜곡된 건축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을 그가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주택이 “작업할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효과적인 도움을 우리에게 주는 기계이자 신체의 요구, 즉 안락함을 만족시키기 위한 근면하고 세심하게 배려된 기계”면서 또한 “명상하기 편리한 장소며, 최종적으로 아름다움이 존재하고 없어서는 안 될 정신적 평안함을 가져온다.”고 하면서 “명상, 미의 정신, 이를 통제하는 (또한 이 아름다움의 버팀목이 될) 질서에 관계되는 사람을 위한 것”이 될 때 비로소 건축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주택은 살기 위한 기계”라고 말했다 때¹¹⁾ 보수적인 아카데미 회원들은 “부동성, 가족의 보금자리”의 상징인 주택과 기계를 연계시켰다고 분노했고 진보적인 전위 예술가들조차 “서정성에 빠져 기계를 배반했다.”고 그를 비난했다.¹²⁾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정의

이와 같이 보수와 진보 양 진영 모두에서 공격을 받기도 했던 르코르뷔지에의 건축에 대한 정의는 대부분 기존의 건축 용어를 빌려 내려졌음에도 그 안에 내재된 의미와 실천 방법론에 함축된 차이점은 때로 근원적이기까지 하다.

1. 물질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건축

1) 기능과 조직으로서의 건축

1920년대의 저서들에 나오는, 시대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르코르뷔지에가 거론한 대량생산, 합리화, 기계시대 도래로 인한 산업화, 비행기나 선박 또는 자동차가 주는 교훈, 요구에 응하는 유형으로

서의 가구, 정신의 개혁을 수행하는 근대 현상인 기계가 주는 교훈, 즉 그 원인과 결과의 순수한 관계이자 순수성, 경제성, 지혜를 향한 집중인 기계가 보여주는 순수의 미학, 정확성의 미학, 표현 관계의 미학에 대한 찬탄, 시적 감흥의 기반으로 격상한 기술이 건축의 새 시대를 열 것이라는 주장 등은 시대정신의 자각에서 비롯된 새로운 건축의 바탕에 ‘기능’ 중시 사고가 있음을 시사한다.

“건축은 질서체계를 세우는 행위입니다. 어떤 질서체계일까요? 기능과 대상에서의 그것입니다.”라는 그의 언급은 건축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빈틈없는 해결책”으로 가지런히 바로잡아 질서를 부여함에서 시작됨을 나타낸다.¹³⁾ 구조화된 집합에서 하나의 요소나 부분 또는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인 기능(function)과 그 기능을 담는 물질적 존재인 대상(objet)의 위계화가 건축행위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는 인간의 각종 계획을 담는 유용한 그릇들(기계시대의 발전 궤적을 거침없이 보여주는 건축)이 기능을 통해 만들어진다며 “건축은 기능입니다.”라고 단언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왔으며 인류 역사의 한 장이 넘어간 징조를 분명한 증거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¹⁴⁾ 과거 건축의 폐단인 허식을 떠나 평범한 사람을 위한 주택¹⁵⁾을 연구하는 것을 인간적 기반, 인간적 척도, 필요형, 기능형, 감동형을 되찾는 것으로 여긴 르코르뷔지에를 이를 위한 인간의 척도와 기능을 탐구한 결과 ‘표준(standard)’과 ‘유형(type)’ 개념을 들고 나왔다.

르코르뷔지에에는 모든 사람은 동일한 유기적 조직체를 가지고 동일한 기능을 하며 모든 사람은 동일한 요구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으로 인간의 작품에서 기율어진 질서에 대한 필요성이 낳은 결과인 표준을 근거 있는 분석과 실험을 통해 논리가 보증된 확실한 기반 위에서 설정하고자 했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모든 가능성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최대의 효율로, 최소한의 수단과 일손, 재료, 표현, 형태, 색채, 소리 등으로 기능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형을 추론하고자 했다. “우리는 완벽성의 문제에 맞서기 위해 표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건축의 향하여』의 「보지 못하는 눈」 자동차 편은 마지막 문장도 “그러나 우리는 완전함의 문제에 대처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표준의 설정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로 끝난다. 그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끊임없이 개선되며 당시

10) Le Corbusier, 『프레시지움』, 정진국·이관석 역, 동녘, 2004, 104쪽.
 11) Le Corbusier, Almanach d'architecture moderne, 1926
 12) Le Corbusier, 『프레시지움』, 정진국·이관석 역, 동녘, 2004, 105쪽.
 13) 위의 책, 87쪽.
 14) 위의 책, 251쪽.
 15) 이때 주택에 해당하는 불어 maison은 또한 건물이라는 뜻으로 넓게 쓰이기도 한다.

기술의 최대치인 새로운 표준을 따라 대량생산되는 자동차의 전례로서 표준을 선택한 신중한 선택의 산물인 파르테논에서 발견하고, 페이디아스처럼 논리와 분석, 면밀한 연구의 산물로서 명확하게 규정된 문제에 기초한 표준에 의해 제어되는 건축의 가능성과 성공을 믿었다.

『오늘날의 장식예술』의 「유형으로서의 요구, 유형으로서의 가구」장에서 르코르뷔지에는 “인간 수족으로서의 사물이 유형으로서의 요구에 응하는 유형으로서의 사물”임을 직시하고 유형으로서의 요구를 연구하여 유형으로서의 기능을 파악하고 이것에 의한 유형으로서의 가구를 생산하자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척도와 인간의 기능을 탐구함으로써 인간적 요구(이 요구가 유형이다)를 정의하여 장식예술로서의 가구가 아닌 완벽한 유용성과 편의성을 지닌 도구로서의 가구를 꿈꾼 것이다. 마찬가지로 『프레시지움』의 「가구의 모험」장도 평균치를 통해 표준 기능, 표준 필요, 표준 목적, 표준 크기를 구함으로써 인간의 요구인 유형을 정의하여 일정하고 일상적이고 규칙적인 기능에 들어맞는 가구 생산을 주장하였다. 가구를 사회적 지위와 축재 수준을 알리는 수단이 아닌 연장이자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봉사자라는 의식은 다음 장인 「현대주택계획」에서 분류, 치수, 동선, 구성, 비례 연구를 통한 표준적이고 정확한 기능들이 성취되고 충족되는 건축으로 연결된다.

표준이나 유형 모두 최대치를 찾는 통계적 의미를 담은 용어로 볼 때 표준을 찾아 그에 합당한, 형태나 구조 등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유사성이나 동일성이 포착되는 유형을 도출하고자 하는 시도는 인간적 요구까지 일정한 틀에 맞춰 일률적으로 정의하려는 과욕에 가깝다. 당시의 정황 상 의도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건축을 통한 사회개혁의 꿈을 꿔던 당시 선도적 건축사들이 흔히 간과했던, 자신의 환경에 대해 자율성을 가진 살아있는 유기체인 개인(individu)을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르코르뷔지에는 건축의 기능이 추상성을 통해 가장 고양된다고 주장함으로써¹⁶⁾ 표준화와 유형화의 궁극목적을 드러냈다. 이때의 추상성은 새로운 기계시대의 도래에 따라 자연의 법칙에서 도출한 수학적 계산을 활용하여 건축을 하는 엔지니어의 미학을 존중하는 의식으로서 장식에 심취한 주류 아카데미즘을 공격하는 미학

적 근거였다. 명확하게 인식되기에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모호함이 없는 간결성과 명확함을 드러내는 기본 형태들에 대한 그의 선호는 이후 살펴볼 건축에서의 기하학의 의미와 아울러 빛과 건축과의 조화라는 연관성에서 재론코자 한다. 그에게는 당시 건축사들이 이러한 단순한 형태를 더 이상 구현하지 않음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또한 르코르뷔지에는 전술한, “건축은 질서체계를 세우는 일”이라는 정의와 연관되는 내용으로, 건축은 조직이며 건축사를 도면을 잘 그리는 제도 기능공과 다른 조직자로 생각했다. 조직적 두뇌를 가지고 조형적 결과에 대한 애정을 경계하는 적대자로서 과학적 인간이어야 하며 예술가와 학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계장치를 사고의 조직체로 인식했다. 기계를 살아있는 생명처럼 놀랍도록 능숙하고 결코 실수하지 않으며, 행동이 완전하고, 힘세거나 우아한 짐승들처럼 조직화된 존재로 인정하고, 현대적 도시계획과 주거 모두 정확한 조직에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의 기능적·인위적 구획, 시간과 인간의 삶이 누적된 도시의 의미 소거 같은 당연히 짚어야 할 문제점조차 그에게는 부차적이었던 것 같다. 단지 자신의 발상을 어떻게 전파하고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만 몰두했다.¹⁷⁾

그가 건축사가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방체들은 더 이상 마구잡이로 쌓아 방치한 현상이 아니라 조직적이며 분명히 의식적인 행위이자 정신성의 현상이었다. 암암리에 가졌던 무질서나 비조직화, 갈등 상황, 혼란의 개념을 극복하고 건축을 조직화와 내적 구성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삶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작용 원천 그 자체인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는 기능과 조직으로서의 건축을 주장한 것이다.

2) 동선과 볼륨으로서의 건축

르코르뷔지에는 『프레시지움』의 「기술은 시적 감흥의 기반이며 건축의 새 시대를 연다」장에서 과거의 석조 주택과 상이한 철 또는 콘크리트 건물의 특징을 거론하며 현대 기술이 가져온 위대한 성과인 필로티가 적용된 사례로서 자신이 설계한 센트로소유즈 청사를 설명할 때 “건축은 동선(circulation)”이라고 선언했다.¹⁸⁾ 같은 책의 「현대 주택 계획」장에서도 동선은 “중요한 현대적 용어입니다. 건

16) “건축은 더 심오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숭고해지기까지 하는 건축은 객관성을 통해 가장 근원적인 본능을 발산한다. 건축은 바로 그 추상성을 통해 최고로 고양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건축적 추상은 냉엄한 사실에 근거하여 건축을 특별한 것으로 만들며 정신화시킨다. 왜냐하면 냉엄한 사실은 실행할 수 있는 개념의 구체화이자 상징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냉엄한 사실은 그것에 적용된 질서에 의해서만 개념화될 수 있다.” 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46쪽

17) 그는 아이디어만 내놓은 이상가가 아닌 현실성 있는 기획가를 자처하며 ‘치료’가 아닌 ‘수술’ 요법으로, 가치 하락이나 평가 절하가 아닌 가치 창조인 도시화를 위해 토지를 수용하고 은행가를 설득하며 국가가 보증하는 전략까지 상세히 논하였다. (『프레시지움』, 188-207쪽)

18) Le Corbusier, 『프레시지움』, 정진국·이관석 역, 동녘, 2004, 64쪽.

Le Corbusier

축과 도시계획에서는 동선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할 정도의 동선 중시 사고는, 여기서 분량의 문제로 상술할 수는 없지만, 1920년대 르코르뷔지에 건축의 본질적 특성이었다. 건축을 평면적·정면 중심적으로 바라보던 2차원의 정태적 시각에서 벗어나 이동하면서 공간을 순차적으로 지각한 인간의 기억 능력에 의해 기능과 미를 동시에 느끼는 4차원의 동태적 관점을 갖게 된 것이다.

르코르뷔지에는 1920년대 자신의 건축 사고가 집대성된 사부아 주택(Villa Savoye, 1929-31)을 설명하며 이러한 새로운 건축은 평면과 단면의 개혁에서 비롯되어 여기서 구사된 순환동선은 방문자에게 감동을 안겨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피력했다.¹⁹⁾ 이 주택에 적용되었고 『프레시지움』에서 사례들과 함께 다시 거론된 ‘돔-이노(Dom-ino) 이론’, ‘새로운 건축의 5원칙(5 points de l'architecture nouvelle)’, ‘네 가지 구성법(4 compositions)’ 같은 발상을 그는 생생한 현대의 물질을 바탕으로 얻은 자유로서 기술이 가져온 시학이며 서정이라고 자신했다.²⁰⁾

과거 건축의 폐쇄적·고착적·단절적 공간이 자유롭고 융통성 있으며 열린 근대적 공간으로 변모한 데에는 “... 건축은 공간, 너비, 깊이, 높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볼륨이고 동선입니다. 건축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집니다.”²¹⁾라는 르코르뷔지에의 언급 같이 건축을 동선과 볼륨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이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그는 볼륨을 동선과 함께 거론하고 있는데, 볼륨은 특히 『건축을 향하여』에서 자주 언급된다. 볼륨이 우리의 감각이 지각하고 평가하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요소, 표면과 함께 건축이 스스로를 드러나게 만드는 요소, 건축적 감각, 즉 체감하는 감각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이 언급들은 주로 보이는 외관으로서의 볼륨을 뜻하지만 또한 그 표면 속의 내부공간을 고려할 때도 이 용어가 쓰임이 포착된다. 즉 한 대상의 내·외부 모두를 염두에 둘 때 채택된다는 말이다.

르코르뷔지에는 우리가 흔히 오용하는²²⁾ 둘 다 ‘부피’로 번역될 수 있는 볼륨(volume)과 매스(masse)를 자신의 저서에서 분명히 구별하여 썼다. 그는 『건축을 향하여』의 「보지 못 하는 눈」장 자동차 편에서 진출입의 법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속도를 위해서는 커다란 매스를 앞에 두고(경주용 차), 안락함을 위해서는 중요한 볼

륨을 뒤편에 위치시킨다.”고 하였다. 내부가 조밀하게 차 있는, 중량감과 재질감이 강조된 덩어리(엔진부)를 매스로, 가볍고 얇은 표피에 싸여 있는 내부의 빈 공간(승차부)을 함께 고려할 때는 볼륨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건축에 적용 시 매스가 19세기까지의 어둡고 무거우며 폐쇄적인 건축을 의미한다면, 볼륨은 밝고 가벼우며 개방적인 이후 건축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전 건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부 공간성을 증시하는 근대건축의 특성을 드러낸 용어라 하겠다.

공간과 볼륨의 관계가 올바른 비례로 되어 있어야 고도의 질서로부터 만족을 얻는 건축에 합당하다는 르코르뷔지에의 지적은 그가 새로운 건축이란 더 이상 과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당연히 기능을 충족시키면서 근대적 동선 및 내·외부가 동시에 고려된 볼륨 안에서 좋은 공간성을 품은, 더 나아가서 내재된 풍요한 정신성이 정제된 미학을 발산하는 건축임을 꿈꾸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축을 향하여』에서 다섯 번이나 거듭 표명된, 가장 유명한 건축 정의 중 하나로서 르코르뷔지에가 1921년 『레스프리 누보』를 통해 건축 운동에 개입했을 때 가장 중시했던 모토인 “건축은 빛 아래에 볼륨을 숙련되고 정확하고 장엄하게 모으는 작업”이라는 정의는 외관으로서의 건축만이 아니라 자연광으로 충만한 좋은 내부공간을 함께 지닌 수준 높은 건축을 염두에 두고 한 선언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이관석, 『건축, 르코르뷔지에의 정의』, 동녘, 2011
2. BESSET, Maurice, Le Corbusier, Skira, 1987
3. COHEN, J.-L.(int.), Le Corbusier, le Grand, Phaidon, 2008
4. 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5. Le Corbusier, 『프레시지움』, 정진국·이관석 공역, 동녘, 2004
6. Le Corbusier, 『오늘날의 장식예술』, 이관석 역, 동녘, 2007
7. LUCAN, Jacques, Le Corbusier, une encyclopédie, Centre Georges Pompidou, 1987

19) “마지막으로 단면을 봅시다. 공기는 모든 곳에서 순환되고 햇빛은 모든 곳에 있으며 모든 곳을 관통합니다. 순환 동선은 현대 기술이 가져온 건축적 자유를 모르는 방문자를 당황스럽게 하는 다양한 건축적 감동을 줍니다.”(『프레시지움』, 155쪽)

20) 위의 책, 158쪽.

21) 위의 책, 250쪽.

22) 『건축을 향하여』의 영문판에서도 역자가 두 단어의 차이를 모르고 르코르뷔지에가 구별하여 쓴 볼륨이라는 용어를 여러 곳에서 매스로 오역하였다. 한국어 번역판 중 불어 원본을 번역하지 않은 경우 마찬가지로의 오역이 다수 발견된다.